



서른네번째 이야기

나의 사랑하는 책

[2020 선교지 사역현장⑩ 방글라데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은 코로나19를 넘어 영적 어둠을 뚫고 한 사람의 인생에 참된 빛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BEE 인도팀이 어둠에서 빛 속으로 돌아온 우리의 형제인 방글라데시의 Sujit Gain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Sujit Gain

저는 수짓 게인(Sujit Gain)입니다. 저는 힌두교 가정의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명의 자녀를 홀로 돌보기 어려웠던 어머니는 제가 4살이 되자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978년에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Douglas Memorial Children Home에 입소했고, 어린 나이에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배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유아반을 마치고 1학년 반에 진급했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980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의 가슴 떨렸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시편 1장을

읽었는데 처음 세 구절까지는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맞춤법 교육 없이 교과서를 매우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아원에는 1년에 여름과 겨울에 두 번의 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라 겨울 방학 때만 집에 갈 수 있어서 대부분의 여름휴가를 처지가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 번은 휴가 기간에 집에 갔는데, 제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앞에 몸을 굽히고 절하며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기분이 매우 좋지 않고 꺼려졌지만 5학년을 마칠 때까지 방학 때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아셨는지 일요일에 저를 마을 교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이 편안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984년 5학년 때 고아원을 위한 지역 주일 학교 대회에서 2등을 하고 상금으로 15 타카를 받아 친구에게서 오래된 성경을 구입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소유의 성경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에 미친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나를 '사두'(성자)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며칠 만에

4복음서를 다 읽고, 많은 구절을 외웠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해 겨울 방학에 나는 결단한 대로 주저하지 않고 친척들과 힌두교 친구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했고, 대신에 교회 캐롤 그룹과 크리스마스를

위한 교회 장식에 참여했습니다. 친척들은 ‘당신의 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뜻의 속어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조롱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묵으로 응답하면서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대로 너의 신을 잊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의 지지보다 믿음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지원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1987년 8학년을 마치고 고아원을 나와 9학년 입학 위해 지역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입학 양식을 작성할 때 종교란에 ‘힌두’가 아닌 ‘기독교’라고 적자, 입학 담당관이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결국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믿음이 강했지만 때때로 ‘정말 구원 받았을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을까?’ 등등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1988년 12월 말에 기독교인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이웃 마을에서 열리는 청소년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주최자 Alfred A. Adhikary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요한복음1:12, 5:24, 요한1서5:11-12와 같은 성경구절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 시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붙잡고 영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TWR(Trans World Reach Bangladesh)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TWR 방글라데시 상사께서 제게 온라인 BEE 코스를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온라인 환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아주 기분 좋게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BEE 일대일 제자 양육 교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

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이 세미나는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나의 열정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많은 부족함을 찾았고 지난 5개월간 이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오래된 문제들도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모두 풀렸습니다.

QT는 제게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보았지만 세미나를 통해 배운 방법들은 더욱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유대감도 더욱 돈독하게 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국어로 번역하면 테스트와 유혹, 때론 테스트 한 가지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번 BEE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일상 속에 시험과 테스트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또는 사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BEE 세미나에 참가하고 수료하였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과 BEE Trust, 정말 친절하신 인도자 쉐나 자매님과 보충 수업을 해 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번역: 이경주, 정주영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남미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대표 음식]

베스까도 뿌리또 곤 아로스꼬꼬(좌): 카리브 해안에서 시작된 음식으로서, 코코넛 속을 섞은 밥, 통생선튀김, 튀김 바나나, 야채에 레몬을 뿌려 천연과일주스와 같이 먹는 건강식이다.

아히아꼬(우): 한국 닭곰탕과 유사한 음식으로 닭다리와 가슴살, 옥수수, 당근, 유카(마와 감자 중간 식감), 아과과떼, 향신료를 푹 고아서 먹는 건강식으로 닭 대신 돼지고기, 소고기로 바꿔서 요리하고 튀긴 그린 바나나와 함께 식사한다.

BEE 소식

1. 2020년 “준비하라”(암4:12)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실천하신 BEE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 환자와 가족들을 기도하며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있는 그곳이 경건의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내세요.
3. 12월 14일(월)-2021년 1월 2일(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를 통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4. 2021년 1월 7일(목) -2월 25일(목), 2021 BMT (BEE Missionary Training)가 있습니다. 8주간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BEE 가족의 첫걸음을 축복합니다.



BEE 가족 모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2021년 되세요